

【 해외금융뉴스: 유럽 】

재보험료 인상 전망

□ 유럽 및 북미지역에서 금년 1월1일부터 재계약되는 재보험료의 가격이 인상될 전망이다.

- 재보험료 인상의 1차적 배경은 250억 달러에 달하는 허리케인(구스타프, 아이크) 손실과 주식 및 채권시장의 약화로 인한 재보험사의 자본잠식임.
- 2차적 배경은 대출조건 강화와 주식시장 변동성의 증가로 인해 재보험사의 악화된 재무 상태를 호전시키기 어려워진 상황을 들 수 있음.

□ 최근의 상황은 지난 2001년 911 국제무역센터 테러, 2005년의 카트리나 허리케인의 경우와 비교할 때 재보험료 상승측면에서는 유사하나, 신규 재보험사 시장 진입 측면에서는 대조된 양상을 보임.

- 2001년과 2005년의 경우 리스크 증대 예상에 따른 재보험료 인상이 단행되었고, 시장에서는 재보험료 인상發 호황을 노린 재보험사 창업러쉬가 발생함.
- 그러나 현재의 상황은 ①자본조달비용의 증가, ②재보험수요의 증가, ③리스크 증대 환경 등을 원인으로 한 재보험료 인상이 발생할 전망이다, 재보험사 경영 상황 악화추세에 따라 잠재적 재보험사의 시장 내 진입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.
 - 대출조건 강화와 주식시장 변동성 증가는 경영상황이 악화된 재보험사의 자본조달 비용을 증가시키고 있으며, 재보험사는 이를 원수보험사에 보험료 인상을 통해 전가시킬 것으로 보임.
 - 원수보험사의 출재는 직접적인 자본 대체방법이 되므로 재보험수요를 유발하고 재보험료 인상을 가져올 것으로 보임.
 - 허리케인 발생 빈도 및 심도 증가는 담보하는 리스크를 증대시킴에 따라 재보험료 인상을 가져옴.

□ 최근 2개월 동안 재보험료는 20%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업계는 2009년 초부터 실시되는 재보험 재계약에서는 두 자리 수의 인상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.

- 인상이 예상되는 산업은 허리케인 노출 예상 지역의 건물, 석유·가스 시설 및 기타 거대 손실이 예상되는 시장이나, 이외의 산업은 인상에서 제외 될 전망이다.

(Financial Times 12/28)